

국립국어연구원 소식

1. 보고서 발간

2003년부터 2004년 6월까지 연구 사업의 결과를 보고서로 발간하여 배포한 것은 <표 1>과 같다.

<표 1>

번호	서명	담당
1	북한의 우리말 의미 연구 자료집	전수태
2	북한 사전 미등재어 조사 연구	전수태
3	한국 현대 소설의 어휘조사 연구	김한샘
4	표준 발음 실태 조사 II	김선철
5	전면 개정을 대비하여 쉽게 고쳐 쓴 우리 민법	김문오
6	제품 설명서의 문장 실태 연구 2	김문오
7	언론 외래어 순화 자료집	최용기
8	국어 순화 자료집	최용기
9	국어 순화 자료집 합본	최용기
10	2003년 신어	박용찬
11	초등학교 교과서 한자어 및 한자 분석 연구	이준석
12	어문 규범 준수 실태 조사 IV	정희원
13	주요 어휘 용례집 -부사·관형사·대명사·수사·감탄사·의존 명사 편	정호성
14	실용문 실태 연구	양명희
15	신문 문장 분석 -사설, 칼럼을 중심으로-	김세중
16	국어학 연감 2003	박민규
17	국어 연구 논저 목록 II	박민규
18	제2차 남북 국제 학술 회의 논문집	이승재
19	표준국어대사전 정오표	조남호

1) 북한의 우리말 의미 연구 자료집

북한의 대표적인 언어 관련 기관지인 ‘문화어학습’(1968~1997)과 ‘조선어문’(1993~2001)에서 의미론 관련 논문과 자료를 모은 것으로 최근 북한의 의미론 연구의 동향을 잘 보여 주는 자료집.

제1장은 개관, 제2장은 총론·의미 이론·의미 실제에 대한 논문 30편, 제3장은 의미장·고유어·어휘 풀이에 대한 논문 32편과 자료 91편, 제4장은 동의어에 대한 논문 23편과 자료 11편, 제5장은 반의어에 대한 논문 6편, 제6장은 속담에 대한 이론과 실제에 대한 논문 8편과 속담 자료 77편, 제7장은 우리말 표현·묘사에 대한 논문 25편과 자료 22편을 각각 신고 있다. 끝에 잡지별 색인과 필자별 색인을 붙여 찾아보기 쉽도록 하였다. 국배판 780면.

2) 북한 사전 미등재어 조사 연구

최근 북한에서 발행된 신문, 방송, 잡지, 문학 작품 등 각종 자료에서 북한의 ‘조선말대사전’(1992)에 실려 있지 않은 어휘 약 670어를 모으고 예문을 붙인 것이다. 조사 대상 자료 가운데 장편 소설 ‘고난의 행군’(1976) 등 20여 편을 제외한다면 노동신문, 평양신문,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등 언론 자료들과 ‘문화어학습’, ‘조선어문’ 등 잡지 자료들은 대체로 1992년 이후에 나온 것들이다. 그러므로 1992년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 자료에서 뽑은 것은 실제로는 쓰였으나 사전에 실리지 않아 미등재어가 되는 것이고, 그 이후 자료에서 뽑은 것은 사전 편찬 뒤에 나온 것이어서 신어가 될 것이지만 양쪽 다 다음에 편찬될 사전의 표제어 후보가 될 단어들이라고 생각하여 ‘미등재어’라는 말을 쓰기로 하였다.

신어라고 할 만한 것들 가운데에는 ‘강시울’(강변, 강가), ‘뒤매’(뒷모습), ‘들먹이’(가득히), ‘망냥딸’(막내딸), ‘무리벌’(단체로 받는 벌), ‘벗겨쓰다’(닭다), ‘실거품’(기는 거품), ‘푸초밭’(채소밭) 등 살려 쓸 만한 말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신국판 180면.

3) 한국 현대 소설의 어휘 조사 연구

1990년 이후에 출판된 203편의 소설을 5000어절 이내로 끊어 모은 약 100만 어절의 소설 문헌을 대상으로 어휘를 분석했다. 보고서에는 자소, 음절, 어절, 어휘, 구 등 다양한 언어 단위를 조사한 결과를 수록했다. 어문 규범에 어긋난 어휘의 경우 목록과 빈도를 제시했다. 가장 많이 나타난 자소는 ‘초성 ㅇ’로 706,251번 나와 전체의 9.87%를 차지하였다. 어절의 범주 구성에 대해 통계를 낸 결과 우리말에서 가장 흔한 어절의 구조는 ‘동사+연결어미’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빈도가 높은 어휘는 ‘이다’로 34,853번 출현하여 3.34%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나(대명사), 것(의존명사), 있다(보조용언), 하다(동사)’의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조사된 일반 어휘 42,800개 중에 상위 1,378개가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4,415개가 80%를, 12,208개가 90%를 차지했다.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구 단위 표제어는 ‘미스 코리아’로 빈도치가 66이었다. 이 외에도 ‘여름 방학, 주민 등록, 선임 하사, 여자 대학’ 등의 구 표제어들이 많이 나타났다. 어문 규범에 어긋난 어휘 중에서는 ‘-라구’, ‘-두’ 등 구어체 어미, 조사가 소설 문장에 그대로 사용되는 사례가 많았으며, 잘못 쓰인 외래어 표기도 많이 드러났다. 국배판 806면.

4) 표준 발음 실태 조사 II

서울 및 경기도 지역 출신 주민들의 발음 실태 조사 결과를 담은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표준어권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 인천, 경기도 출신 주민 350명에게 ‘인기척, 버선발’ 등에서의 경음화, ‘목양말, 첫인상’ 등에서의 ㄴ-첨가를 비롯한 총 9개 범주, 265개 문항을 질문하여 얻은 응답을 집계하였다. <표 2>는 이번에 조사한 결과의 일부이다.

<표 2>

조사 대상어	표준 발음	다수 응답
검찰	[검:찰]	[검찰]
관건	[관건]	[관건]
김밥	[김:밥]	[김뺨]
땅거미	[땅거미]	[땅꺼미]
땅임자	[땅님자]	[땅임자]
밟고	[밟:꼬]	[발꼬]
밤새	[밤쌌]	[밤새]
보온병	[보온병]	[보온뺨]
불법(不法)	[불법]	[불뺨]
빵으니	[뺨:으니]	[뺨으니]
수놈	[수놈]	[순놈]
수학(數學)	[수:학]	[수학]
온랭	[올랭]	[온냉]
인사말	[인사말]	[인산말]
힘입다	[힘닙따]	[히뺨따]

또한 얻은 응답을 성별, 학력별, 연령별로 통계 처리한 결과 서울말에서는 성별, 학력별로 나타나는 차이보다는 연령별 차이가 더욱 두드러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젊은 층으로 갈수록 ‘김밥, 미술’ 등의 장음이 단음으로 발음되고 있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표 3> 참조). 4x6 판 175면.

<표 3>

‘김밥’의 응답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장음	4	3	12	30	55
단음	45	67	57	41	36
‘미술’의 응답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장음	3	14	20	26	49
단음	46	56	49	45	42

5) 전면 개정을 대비하여 쉽게 고쳐 쓴 우리 민법

법조문은 국민들이 읽어서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함에도 현행 법령 문장에는 일본식 한자어를 포함하여 지나치게 어려운 용어, 부자연스러운 표현, 중의적인 문장, 문법에 어긋난 표현 등 개선하여야 할 점이 대단히 많다. 국립국어연구원에서는 법령문 순화에 힘을 기울여 2001년 『법조문의 문장 실태 조사』, 2002년 『법령문의 국어학적 검토』라는 보고서를 이미 발간한 바 있다. 2003년에는 『전면 개정을 대비하여 쉽게 고쳐 쓴 우리 민법』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제1부(집필: 김문오 학예연구사)에서는 현행 민법 전문을 의미와 문법 면에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다듬어 민법 원문과 순화안의 대비표를 제시하고, 제2부(집필: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홍사만 교수)에서는 우리 민법에 남아 있는 일본어식 용어와 문체를 서술하였다. 이로써 일반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법률, 국어 문법과 어문 규범을 준수하는 법률 문장의 본모기를 제시하여 장차 민법이 전면 개정될 때 요긴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였다.

앞으로 국립국어연구원은 국회, 정부 부처, 법원 등 법조계에 우리말을 바르게 쓰고자 하는 의식을 확산시켜 나가는 데 꾸준히 힘쓸 것이다. 4x6판 606면.

6) 제품 설명서의 문장 실태 연구 2

각종 제품 설명서에서 발견되는 오류들을 수집하여 이를 유형화하고 분석하여 제품 설명서를 작성하는 담당자들이 설명서를 쉽고 바르게 쓰는 데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발간하였다. 문법에 맞지 않거나 사용자의 이해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지나치게 어렵게 쓴 제품 설명서, 어문 규범이나 국어 문법을 어긴 제품 설명서는 사용자에게 불편을 끼칠 뿐만 아니라 우리 언어 문화에도 나쁜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다. 조사 대상으로 삼은 제품 설명서는 우리 주변에서 친밀하게 접할 수 있는 자동차, 컴퓨터, 가전

제품, 휴대 전화, 약품 등을 포함하여 총 76종 381건이다. 국립국어연구원에서는 제품 설명서 문장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오류를 조사하고 분석하여 『제품 설명서의 문장 실태 연구 1』(2002. 12.), 『제품 설명서의 문장 실태 연구 2』(2003. 12.)라는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보고서 두 권 중 제1권은 제품 설명서의 오류 중 지나치게 어려운 용어나 표현을 중점적으로 다룬 것이고 제2권은 그 밖의 문법적·의미적 문제점과 표기의 오류들을 중심으로 다룬 것이다.

이는 주로 각 기업의 제품 설명서(서비스 자료) 발간팀, 고객 지원 부서, 관련 연구소 등에 배포하여 제품 설명서의 문장 작성 지침으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제품 설명서를 쉽고 바르게 작성하는 분위기를 업계에 확산시키고 일반 국민들에게도 문장 바로 쓰기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신선한 자극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4x6판 753면.

7) 언론 외래어 순화 자료집

1999년 6월부터 2003년 10월 말까지 중앙의 주요 일간 신문에서 불필요하게 쓰인 외국어를 우리말로 바꾸어 각 신문사에 알린 순화어 1,174개를 모아 놓은 것이다.

구체적으로 예시하면 ‘네일아티스트’를 ‘손톱 관리사’로, ‘레코드숍’을 ‘음반 가게’로, ‘멀티플레이어’를 ‘만능선수’로, ‘벤치워머’를 ‘후보 선수’로, ‘센티피스’를 ‘중앙 장식’으로, ‘스위치 디펜스’를 ‘바꿔막기’로, ‘스팟 아이템’을 ‘반짝 상품’으로, ‘오프숄더’를 ‘맨어깨’로, ‘이너웨어’를 ‘속옷’으로, ‘컨티전시 플랜’을 ‘비상 대책’으로 순화한 것 등이 있다. 신국판 330면.

8) 국어 순화 자료집

연극 용어 323개, 영화 용어 354개 모두 677개를 순화하여 모아 놓은 것이다. 순화된 연극 영화 용어는 지난 2001년 국어 정책 과제인 ‘연극 영화 용어 순화를 위한 기초 연구’(연구 책임자: 고려대 김성도 교수)를 바탕으로

하였고, ‘연극 용어 순화안’(작성자: 성균관대 정진수 교수)과 ‘영화 용어 순화안’(작성자: 중앙대 이승구 교수)을 보충하여 작성하였으며, 지난해 국어 심의회(국어 순화 분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다.

그동안 국어 순화 자료집은 일본어투 용어, 행정 용어, 법령 용어, 생활 외래어, 건설 용어, 임업 용어, 미술 용어, 식생활 용어, 봉제 용어, 선거 정치 용어, 전산기 용어, 국악 용어, 패션 디자인 용어, 문화재 용어, 전기 전자 용어, 금융 경제 용어, 농업 용어, 지하철 운전 용어, 정보 통신 용어, 운동 경기 용어, 법의 부검 용어, 금융 용어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발간되었다. 신국판 148면.

9) 국어 순화 자료집 합본

지난 1991년부터 2002년까지 12년간 발간된 ‘국어 순화 자료집’ 12권을 한데 모아 가나다순으로 배열해 놓은 것이다. 40여 분야에 걸쳐 2만 2천여 단어를 수록하였다.

구체적으로 순화 대상 용어 분야는 행정 용어, 법률 용어, 일본어투 용어, 미술 용어, 건설 용어, 신문 제작 용어, 식생활 용어, 선거 정치 용어, 전산기 용어, 생활 외래어, 임업 용어, 봉제 용어, 국악 용어, 패션 디자인 용어, 문화재 용어(고고학, 민속학, 건축사, 미술사 용어), 언론 외래어, 전기 전자 용어, 농업 용어, 금융 경제 용어, 지하철 운전 용어, 정보 통신 용어, 운동 경기 용어(농구, 배구, 배드민턴, 볼링, 사격, 사이클, 스케이트, 승마, 야구, 축구, 테니스, 하키, 핸드볼, 골프, 스키 용어), 연극 용어, 영화 용어, 금융 용어, 법의학 용어 등이다.

이용자가 찾아보기 쉽도록 순화 대상 용어를 가나다순으로 배열하였고, 분야별로 순화 용어 찾아보기, 순화 용어로 순화 대상 용어를 찾아보기도 함께 수록하였다. 이 자료집 합본은 순화 대상 용어, 원어, 해당 분야, 구분(강제 사용, 권고 사용, 병행 사용), 순화 용어, 예문 등의 순으로 제시하였는데 분야별로도, 순화 용어로도 찾아 볼 수 있게 하였다. 신국판 1330면.

10) 2003년 신어

2003년 2월 초부터 9월 말까지 주요 중앙 일간지와 방송에 사용된 신어(2003년 신어와 사전 미등재어) 총 2,426개를 뽑아 여기에 뜻풀이한 것을 한 데 모아 놓은 것이다. 이 자료집에서는 조사된 신어를 2003년에 즈음하여 새로이 만들어져 쓰인 말과 오래전부터 쓰여 왔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국어사전에 오르지 않은 말을 따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조사된 각각의 신어에 대하여 어원, 뜻풀이, 용례, 출전을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당 신어가 2003년 이전에 이미 사용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가장 이른 시기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용례와 출전도 함께 제시하였다.

배열은 한글 표기상의 가나다순에 따라 제시하여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자료집의 본문은 전체적으로 두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앞부분에서는 2003년에 새로이 만들어져 쓰인 말을 ‘2003년 신어’라 하여 따로 간추렸고 뒷부분에서는 오래전부터 쓰여 왔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국어사전에 오르지 않은 말을 ‘사전 미등재어’라 하여 따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그리고 부록으로 이 자료집에 수록된 신어의 ‘가나다순 목록’과 ‘역순 목록’을 첨부하여 신어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더욱 쉽게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4x6판 434면.

11) 초등학교 교과서 한자어 및 한자 분석 연구

초등학교 전 과목 교과서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으며, 어떤 한자어가 쓰이고 있으며, 그 한자어들에 나타난 한자는 어떠한지, 한자어와 한자들이 각 교과목별로는 어떤 특성이 나타나는지를 조사하였다. 이 조사를 토대로 한자어에 쓰인 한자의 생산성 정도와 이들 한자어와 한자의 의미상의 상관성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번 연구 결과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한자어 종류는 12,787 단어가 쓰였고, 한자는 2,687자가 쓰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중복을 통한 누적 빈도로는 한자어가 223,018단어가 나타나며, 한자는 422,062자가 나타났다. 민현

식 교수(서울대 국어교육과)와 7명의 연구진이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4x6판 446면.

12) 어문 규범 준수 실태 조사 IV

2003년 한 해 동안 대중 매체의 국어 사용 실태에 대한 조사 보고서이다.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하는 대중 매체에서 국어를 바르게 사용하는지 그렇지 않다면 어떤 점에서 언어 규범을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는지를 조사하고, 결과를 널리 알려 매체의 공급자에게는 언어를 올바르게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국민들에게는 바르고 품위 있는 언어생활의 중요성에 대해 주의를 환기하고자 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이 보고서에는 정부 기관 홈페이지(건설교통부, 과학기술부 등 19곳), 텔레비전 방송(연예·오락, 시사 등 12개 프로그램), 잡지(시사, 예술, 취미 등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잡지 25권), 신문(6개 일간지) 네 분야에 나오는 총 8,939건의 오용 사례와 개선 방안이 정리되어 있다.

조사된 오류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어문 규정과 관련된 것들이다. 특히 띄어쓰기는 전체 오류 중 절반 가량을 차지해 가장 많이 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맞춤법과 표준어는 상대적으로 오류가 적었다. 방송과 잡지는 어휘를 잘못 사용하는 예들이 많이 발견되었다. 방송은 특히 외래어 남용 사례가 많이 지적되었다.

문법 및 문장 오류에서는 조사를 잘못 사용한 경우가 많은데, 특히 신문에서 많이 나타났다. 방송의 경우는 표현 방식이 부자연스러운 사례가 많이 지적되었다. 이 보고서의 전체 내용은 국립국어연구원 홈페이지 공개자료실에서 볼 수 있다. 4x6판 664면.

13) 주요 어휘 용례집—부사·관형사·대명사·수사·감탄사·의존 명사 편

2000년부터 진행된 ‘주요 어휘 용례 수집 및 정리’ 사업의 결과 보고서로서 2001년의 형용사 편, 2002년의 동사 편, 2003년 초의 명사 편에 이어

네 번째로 발간하는 것이다.

‘주요 어휘 용례집’은 한국어 교육 종사자 혹은 한국어 학습자에게 국어 주요 어휘의 자연스러운 용례를 풍부하게 보임으로써 그 어휘의 구체적인 의미와 그 의미에 따른 전형적인 용법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게 하려는 의도에서 펴내는 것이다.

이번 용례집에서는 부사 1,073항목, 관형사 436항목, 대명사 94항목, 수사 88항목, 감탄사 149항목, 의존 명사 181항목 등 모두 2,021항목의 주요 어휘를 선정하여 용례를 제시했다. 이로써 그동안 4년에 걸쳐 추진해 온 주요 어휘 선정 및 용례 제시 작업은 일단락되었다.

2004년에는 이 용례집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품사별로 발간했던 결과물 전체를 한데 모으는 한편, 내용을 보완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4x6판, 1,353면.

14) 실용문 실태 연구

우리가 가장 많이 생산해 내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게 되는 몇 종류의 실용문 — 인터넷 홈페이지의 인사말과 인사장, 인터넷의 질의·응답문, 공지문, 보도 자료 —의 실태를 분석하여 바람직한 글쓰기 방법을 제시하고자 추진했던 연구 결과를 담은 것이다.

이는 실용문 글쓰기 교재를 만들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각 영역 담당자들(서울대 장소원 교수 등 6명)은 글의 종류에 따른 정의와 특성을 기술하고, 각 실용문을 몇 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한 후 그 특징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그리고 각 장의 맨 끝에서는 조사한 자료 중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 홈페이지 인사말(해양경찰청, 현대백화점, 남양유업)과 응답문, 보도 자료, 공지문 등을 소개하고 있다.

이제까지 실용문은 비문학적인 것으로 글쓰기에서 비교적 소홀하게 다루어진 감이 있는데 실용문은 우리의 글쓰기 실태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글쓰기 연구에서 꼭 필요한 일이라 생각된다. 국배판 454면.

15) 신문 문장 분석 -사설, 칼럼을 중심으로-

서울에서 발간되는 종합 일간지 10 종을 대상으로 2003년도 사설, 칼럼의 문장을 분석한 결과를 담았다.

신문 사설, 칼럼의 문장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유형의 문제점이 나타났다. 첫째, 의미와 논리면에서, 주관과 객관을 구별하지 않은 경우, 주어와 동사를 함에도 보이지 않은 경우, 언급 대상이 불투명하거나 근거 없이 단정하는 경우, 정보의 양이 빈약한 경우, 논리적 모순과 비약이 심한 경우, 의미가 모호한 경우, 지시어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분명치 않은 경우가 있었다. 둘째, 문법면에서, 문장 성분 사이의 호응을 이루지 않은 경우, 접속을 문법적으로 잘 구성하지 못한 경우, 문장 성분을 누락하거나 생략을 지나치게 한 경우, 조사의 사용이 바르지 못한 경우, 문체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셋째, 어휘면에서, 단어 선택이 바르지 못한 경우, 그밖에 형용사를 동사처럼 사용하거나 접미사 ‘-시키다’를 남용한 경우, 외국어를 남용한 경우가 있었다. 신국판 186면.

16) 국어학 연감 2003

해마다 국어학계의 동향과 연구 성과 등을 정리하여 국어 연구와 국어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발간된다. 이번 2003년판은 1992년 이래 열두 번째로 낸 것으로 국어학의 주요 일지, 국어학의 연구 동향, 국어학 관계 문헌 등을 실었다. 국어학의 주요 일지에는 2002년에 일어난 국어학계의 중요한 일을 정리하였다. 국어학의 연구 동향에서는 국어정책, 국어교육, 음성학·음운론, 형태론, 통사론, 어휘론·의미론·사전편찬학, 국어사·국어학사, 문자·표기, 방언·사회언어학의 아홉 분야로 나누어 각 분야의 연구 동향을 살폈으며 국어학 관계 문헌은 아홉 분야의 논저 목록과 정기 간행물 목록을 수록하였다. 4x6판 541면.

17) 국어 연구 논저 목록 II

국어 연구 자료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1981년부터 2002년까지 발표된 국어 연구 논저 목록을 수집·정리하여 미니 시디롬에 수록한 것이다. 단행본, 학위 논문, 일반 논문, 기타 목록순으로 정리하였으며 종류, 저자, 제목, 출전, 발행처 등을 기준으로 손쉽게 정렬할 수 있도록 정렬용 파일을 함께 수록하였다. 논저 목록 파일은 데이터베이스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구분자와 탭을 이용하여 편집하였다. 부록으로 ‘국어학 연감 2003’ 파일을 함께 수록하였다. 시디 1매.

18) 제2차 남북 국제 학술 회의 논문집

2001년 12월에 북경에서 열린 남북 국제 학술 회의에 이어서 개최된 학술회의에서 발표된 논문집을 엮은 보고서이다. 2003년 11월 5일부터 11월 8일까지 중국 베이징시 21세기 호텔에서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학자들과 고유어와 방언, 국어 정보 처리에 관하여 발표한 논문들을 수록하였다. 이번 학술 회의에서는 고유어, 방언, 말뭉치와 부호 표준화에 관한 3개 분과가 각각 별도로 진행하여 좀 더 실질적인 토론이 진행되었는데, 진행된 학술회의의 일정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날짜별, 시간별로 일정을 정리하였고 부록으로 화보집도 함께 묶었다. 4x6판 310면.

19) ‘표준국어대사전’ 정오표

2004년 6월, ‘표준국어대사전’(1999)의 정오표를 책자 형태로 제작하였고 이것을 피디에프 문서 형식으로 변환한 파일을 담은 시디도 제작하였다. 총 1,200여 곳에서 발견된 오류의 정정 사항을 정오표에 반영하였는데 재검토가 필요하거나 정오표에 반영하기에 마땅하지 않은 것 등은 이번 정오표에 포함하지 않았다. 정오표 제작과는 별도로 2003년부터 ‘표준국어대사전’의 수정 작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이번 정오표에 반영하지 못한 사항과

추가 수정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개정판 사전을 낼 계획이다. 4x6판 32면.

2. 주요 회의 개최 및 참가

2003년 4월부터 2004년 6월까지 회의를 개최하거나 회의에 참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월례 발표회 개최

◇ 2003년 ◇

1) 4월 발표회

- 발표자: 김선철(국립국어연구원 학예연구사)
- 주제: 외래어 발음의 실태와 규범에서의 처리 방안 연구
- 일시: 2003년 4월 4일(금) 오전 10시
- 장소: M1회의실

2) 5월 발표회

- 발표자: 이승환(한국언어청각임상협회 이사장)
- 주제: 말·언어 장애(Speech-Language Pathology)
- 일시: 2003년 5월 16일(금) 오전 10시
- 장소: M1회의실

3) 6월 발표회

- 발표자: 박태호(공주교육대학 국어교육과 교수)
- 주제: 제7차 교육 과정과 초등학교 쓰기 교육의 방향

일시: 2003년 6월 27일(금) 오전 10시

장소: M1회의실

4) 10월 발표회

발표자: 이소영(학술진흥재단 연구단 전임연구원)

주제: 영어권·중국어권 학습자의 표기 오류 실태 연구

일시: 2004년 10월 8일(수) 오전 10시

장소: M1회의실

5) 11월 발표회

발표자: 송기형(건국대학교 불문과 교수)

주제: 프랑스의 언어 정책, 그 역사와 현황

일시: 2003년 11월 28일(금) 오전 10시

장소: M1회의실

◇ 2004년 월례 발표회 ◇

1) 3월 발표회

발표자: 양명희(국립국어연구원 학예연구관)

주제: 채용을 위한 국어 시험의 현황

일시: 3월 26일(금) 오전 10시~12시

장소: 609호

2) 4월 발표회

발표자: 조남호(국립국어연구원 학예연구관)

주제: 일본 출장 보고

- 일시: 4월 29일(목) 오전 10시~11시
- 장소: 609호

- 발표자: 김선철(국립국어연구원 학예연구사)
- 주제: 표준어를 다시 생각한다
- 일시: 4월 29일(목) 오전 11시~12시
- 장소: 609호

3) 5월 발표회

- 발표자: 김하수(국립국어연구원 어문규범연구부 부장)
- 주제: 언어 정책과 국립국어연구원의 방향
- 일시: 5월 21일(금) 14시
- 장소: 609호

(2) 학술회의 개최

1) 국민의 글쓰기 능력 향상 방안 마련을 위한 학술회의

- 일시 : 2003. 7. 15.(월) 14:00 ~ 18:00
- 장소 : 국립국어연구원 중1층 세미나실
- 주최 : 국립국어연구원
- 발표자 및 제목
 - ◇ 국어 능력으로서의 글쓰기 능력
발표: 권영민(서울대 교수), 토론: 박영목(홍익대 교수)
 - ◇ 글쓰기를 위한 사유의 문제
발표: 소흥렬(포항공대 교수), 토론: 김창원(경인교대 교수)
 - ◇ 국민의 글쓰기 능력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국어 교육 방법론

218 새국어생활 제14권 제2호(2004년 여름)

발표: 원진숙(서울교대 교수), 토론: 이인제(한국교육과정평가원 기획조정실장)

◇ 언론인의 글쓰기 능력에 대한 진단과 대책

발표: 권오운(시인, 전 언론인), 토론: 이주행(중앙대 교수)

◇ 공무원의 글쓰기 능력에 대한 진단과 대책---법조계의 글쓰기를 중심으로---

발표: 김광해(서울대 교수), 토론: 임재춘(영남대 객원교수)

학술회의에서 거론된 요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글쓰기 능력 향상을 위해서 ‘글쓰기 이론의 개발, 국어 지식의 보편적 확대, 새로운 글쓰기 제도의 확립, 국어 문장 상담소의 운영’이 필요하다. 일반 국민들이 일상생활, 사회생활, 직업 생활의 과정에서 해야 할 글쓰기 활동의 유형은 ①정보의 획득과 전달을 위한 글쓰기, ②문학적 반응과 표현을 위한 글쓰기, ③비판적 분석과 평가를 위한 글쓰기, ④사회적 상호 작용을 위한 글쓰기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글쓰기 능력의 문제는 언어, 사유, 문화가 상호 작용하는 복합적 관계의 문제로서 문화 창조에 참여하는 사유 공간을 만들어 가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역사적 문제의식이 있는 글, 역사적 변화에 정직한 글, 역사적 과거나 미래를 상상력으로 가능 세계로 그려 주는 글을 지향해야 한다.

바람직한 글쓰기 교육은 ‘과정과 결과의 균형이 잡힌 위크숍’ 형태가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결과물인 글을 중심으로 하는 작문 지도’에서는 오류 유형들을 용례 중심으로 제시하고, 이를 학습자가 직접 고쳐 가도록 하는 방식을 취하여, 글쓰기에 필요한 규범이나 문법 관련 지식을 귀납적으로 원리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았고, ‘문제 해결 과정 중심의 작문 지도’에서는 글쓰기를 일련의 문제 해결 과정으로 파악하고 각 쓰기 단계별(계획하기·아이디어 생성하기·아이디어 조직하기·표현하기·고쳐 쓰기) 문제 해결 전략을 위크숍 형태로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언론인과 공무원의 글쓰기 같은 구체적인 직업별 글쓰기 영역에서도 해당 업무 종사자에게 실질적으로 요구되는 글쓰기 능력이 무엇인지 면밀히 점검하여 그 요구에 맞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국어 순화 실천 방안 마련을 위한 학술 대회

- <557돌 한글날 기념> 우리 말글의 위기, 이대로 둘 것인가? -

○ 일시 : 2003. 10. 06.(월) 14:00 ~ 18:00

○ 장소 :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

○ 주최 : 문화관광부, 국립국어연구원, 한국방송 한국어연구회

- 제1부 사회 : 김희진 (국립국어연구원 어문실태연구부장)

○ 인사말, 기조 강연 (14:00 ~ 14:20) : 남기심(국립국어연구원장)

◇ 발표자 및 토론자

◇ 주제 발표 1 (14:20 ~ 14:50)

국어 순화, 왜 필요한가?

- 발표자 : 한재영(한신대 교수, 국어학)

- 토론자 : 이기만(한글문화연대 운영위원, 성균관대 겸임교수)

◇ 주제 발표 2 (14:50 ~ 15:20)

국어 순화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 발표자 : 고길섭(문화연대 편집 위원장)

- 토론자 : 김수엽(대구가톨릭대 총장, 국어 교육학)

◇ 주제 발표 3 (15:20 ~ 15:50)

사회 언어학에서 본 순화 용어, 무엇이 문제인가?

- 발표자 : 이정복(대구대 교수, 국어학)

- 토론자 : 채완(동덕여대 교수, 국어학)

○ 중간 휴식 (15:50 ~ 16:10)

- 제2부 사회 : 지영서(한국방송 한국어연구회 부장)

◇ 주제 발표 4 (16:10 ~ 16:40)

신문 방송 언어의 순화, 이것이 문제다

- 발표자 : 서지문(고려대 교수, 영문학)

- 토론자 : 최인호(한겨레 교열부장)

◇ 주제 발표 5 (16:40 ~ 17:10)

남북 순화 용어, 통일 방안은 무엇인가?

- 발표자 : 최용기(국립국어연구원 학예연구관, 국어학)

- 토론자 : 김수연(문화관광부 감사관)

◇ 주제 발표 6 (17:10 ~ 17:40)

순화 용어의 보급 방안, 이대로 좋은가?

- 발표자 : 박경희(한국방송 방송 위원)

- 토론자 : 강재형(문화방송 아나운서)

- 토론 사회 : 김세중(국립국어연구원 어문자료연구부장)
- o 종합 토론 : 20분 (17:40 ~ 18:00)

‘국어 순화, 왜 필요한가?’(한재영)에서 순화 용어가 사용자에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은 까닭은 순화 어휘의 수가 많고, 이미 그들 사이에서 서구 외래어와 외국어가 굳어져 있다는 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하였다. 특히 그동안 순화의 대상이 어휘에 한정되었는데 앞으로는 은어와 비속어, 문장과 화법, 언어 예절도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런 국어 순화를 효과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 주체의 기구 상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국어 순화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고길섭)에서 ‘국어’라는 용어는 국가주의 이데올로기의 산물이라 하고, 국어 순화론자들이 말하는 언어의 ‘오염’은 위계, 권력, 지배, 위압, 추궁, 욕망, 배척, 감정 등과 관련된 전략적인 사용 방식이라 하였다. 또 문교부의 국어 순화 운동 협의회는 ‘국어 순화’라는 이름을 뒤집어쓰고 국어 순화 운동이 정치적인 지배 전략 말고도 계급투쟁의 전략으로도 사용되었다고 하였다. 그래서 ‘국어 순화’를 ‘언어 순화’라는 말로 ‘순화(?)’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고, 고운 말의 경우도 언어 사용자의 언어적 윤리성에 맡겨야 한다고 하였다.

‘사회 언어학에서 본 순화 용어, 무엇이 문제인가?’(이정복)에서 순화어를 만들 때에는 우리말의 사회언어학적 특성이 깊이 있게 반영되어야 한다고 하고, 한 단어가 둘 이상의 맥락에서 서로 다른 뜻으로 쓰일 때에는 복수 순화어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앞으로 국어 순화를 효과적으로 전개하여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이론적 바탕에서 출발해야 하며, 순화 작업의 준비 단계에서부터 화자의 생각을 들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고 ‘사용자 중심’의 ‘실제 언어생활에 바탕을 둔’ 순화 작업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신문 방송 언어의 순화, 이것이 문제다.’(서지문)에서 우리의 언어생활이 이렇게 뒤죽박죽이 된 데에는 방송의 책임이 절대적으로 크다고 지적하고, 뉴스 시간에 매일 들어서 이제는 무감각해진 오류가 수없이 많다고 하였다. 능동형과 피동형을 혼동해서 쓰는 경우, 전달하려는 의미는 피동인데 형태는 능동형을 쓰거나 그 반대의 경우도 많다고 지적하였다. 앞으로 방송은 신문을 공격만 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 신문의 언어 수준 만이라도 따라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하였다.

‘남북 순화 용어, 통일 방안은 무엇인가?’(최용기)에서 국립국어연구원이 개원하면서 지금까지 순화한 용어는 2만 5천여 단어에 이르고, 북한의 다듬은 말도 2만 5천여

단어에 이른다고 하였다. 국어 순화 문제는 남북한이 추진하는 국어 정책 분야에서 가장 접근이 용이한 분야이므로 이미 다듬어진 남한의 순화어와 북한의 다듬은 말을 재검토하여 서로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서로 생경하게 만든 새말을 강요하지 말고 자연스러운 말 중에서 서로가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순화 용어의 보급 방안, 이대로 좋은가?’(박경희)에서 방송 출연자 가운데 학식이 높다는 분들일수록, 전문가 집단일수록 외국어 사용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설 새 없이 들려오는 외국어의 범람에 정신을 차리지 못할 지경이 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특히 수많은 채널이 생겨나면서 방송 메시지를 전달하는 진행자들이 방송 언어 교육을 받지 않은 채 방송에 투입돼 사투리와 비표준어, 외국어, 비속어 등을 남용함으로써 방송 언어를 오염시키는 속도가 늘어나는 채널 수에 비례해 그 속도를 더하고 있는 현상은 지극히 염려스럽다고 보면서, 방송인이 우리말 순화 작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3) 국어 문화의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강연회

- 일시 : 2003. 11. 04.(화) 14:00 ~ 17:00
- 장소 :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
- 주최 : 국립국어연구원
- 발표자 및 제목:
 - ◇ 이기문(서울대,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 한국어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 ◇ 이상섭(연세대, 영어영문학과 명예교수), 우리말 문화의 생활화를 위하여
 - ◇ 조동일(서울대,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 어문생활사로 나아가는 열린 시야

이기문 서울대 명예교수는 ‘한국어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고구려, 백제, 신라 말이 각기 달랐듯이 지금도 제주도 방언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매우 많다고 하면서 국어 문화의 발전을 위해서는 현행 한글 맞춤법이나 표준어 교육은 물론 방언의 정리 및 연구, 이에 더하여 한자 교육도 도외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였다. 우리 조상들은 한자를 빌려 문자 생활을 하였지만 결코 한자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았고, 특히 한자 새김은 우리 조상들이 만들어 낸 결과이며 구결, 이두, 향찰 등 독특한 문자를 만들어 언어생활을 영위한 데서 조상들의 창조 정신을 엿볼 수 있으며 이러한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킬 것을 강조했다.

이상섭 연세대 명예교수는 ‘우리말 문화의 생활화를 위하여’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였다. 이 강연에서 이 교수는 표준어 구사 능력을 대학 입시를 통해 평가할 것을 제안

하고, 서당 개마저 3년에 풍월을 읊는다는데 국어 교육 10여 년에 풍월을 읊는 국민이 얼마나 되는지를 묻고 우리나라 옛 교육의 방법을 경멸만 할 것이 아니라 본받을 점은 과감히 수용할 것을 강조했다. 또 국립국어연구원이 국민의 글쓰기 능력 향상에 깊숙이 개입할 것과 교육인적자원부에 강력히 요청하여 국어 교육에 획기적 변화를 가져오게 할 것을 강조했다. 현행 맞춤법이나 띄어쓰기 규정이 까다로운 점이 있어 일반인의 언어생활에 불편함이 있음을 지적하고 국어연구원은 이러한 국민의 불편을 덜어 주기 위해 깊이 연구하여 근본 대책을 세울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조동일 서울대 교수는 ‘어문 생활사로 나아가는 열린 시야’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었는데 지금까지 국어의 내적 역사와 외적 역사를 분리하여 연구한 데서 더 나아가 이를 함께 다루는 영역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이러한 분야를 ‘어문 생활사’라고 명명하고 문학의 역사를 말과 글의 전반적인 쓰임새를 밝히면서 고찰해야 문학에 대한 더욱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언어에 대해서도 총체적으로 연구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조 교수는 서양 철학의 용어를 고유어로 번역하는 것이 우리말로 철학하는 방법일 수는 없다고 지적하고 우리 삶에 맞는 철학을 창조하여 활용하는 폭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날 강연회에는 원로 국어학자, 교수, 대학생, 출판인, 일반인 등 140여 명이 참석하여 강연 내용을 경청하였으며 활발한 질문이 있었다.

(3) 정부 언론 외래어 심의 공동위원회 회의 개최

정부 언론 외래어 심의를 위한 공동위원회 제57차 회의와 제58차 회의가 2004년 4월 21일과 5월 28일에 각각 열렸다. 이 회의에서 심의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제57차 회의 심의 결과 (2004. 4. 21.)

[인 명]

- 게노, 장마리 Jean-Marie Guhenno (? ~) 유엔 PKO(평화유지활동) 사무차장.
- 나지브, 라자크 Najib Razak (1954~) 말레이시아 부총리.
- 라브로프, 세르게이 Sergei Lavrov (1951~) 러시아 외무장관.
- 라우렐, 살바도르 Salvador Laurel (1928~2004) 필리핀 정치가.

- 라자팍세, 마힌다 Mahinda Rajapakse (1945~) 스리랑카 총리.
- 랭, 호프 Hope Lange (1933~2003) 미국 여배우.
- 로빈스, 팀 Tim Robbins (1958~) 미국 배우.
- 로슈코프, 알렉산드르 Aleksandr P. Loshkov (1943~) 러시아 일본 주재 대사.
- 르미에르, 장 Jean Lemierre (? ~) EBRD(유럽부흥개발은행) 총재.
- 리쿠페루, 루벤스 Rubens Ricupero (? ~)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사무국장.
- 림바흐, 유타 Jutta Limbach (1934~) 독일 전 연방헌법재판소 소장.
- 매케이브리지, 머시디스 Mercedes McCambridge (1918~2004) 미국 여배우.
- 메를, 로베르 Robert Merle (1908~2004) 프랑스 작가.
- 메이옌팡 梅艷芳 영명 애니타 무이 Anita Mui (1963~2003) 홍콩 가수, 여배우.
- 민즈팅 閔智亭 Min Zhiting (1924~2004) 중국 종교인.
- 바르니에, 미셸 Michel Barnier (1951~) 프랑스 외무장관.
- 브라히미, 라흐다르 Lakhdar Brahimi (1933~) 유엔 사무총장 특별 고문.
- 브론, 마크 멜록 Mark Malloch Brawn (? ~) UNDP(유엔개발계획)총재.
- 슈베제르, 루이 Louis Schweitzer (1942~) 프랑스 르노 회장.
- 시린톤, 마하 차크리 Maha Chakri Sirindhorn (1955~) 타이 왕녀.
- 시아누크, 노로돔 Norodom Sihanouk (1922~) 캄보디아 정치가.
- 시어런, 샬리즈 Charlize Theron (1975~) 남아프리카 여배우.
- 아다미, 에드워드 페넥 Edward Fenech Adami (1934~) 몰타 대통령.
- 알하사우네, 아운 샤우카트 Awn Shawkat al-Khasawneh (? ~) 유엔 ICJ(국제사법재판소) 판사.
- 앤더슨, 데이비드 David Anderson (? ~) UNEP(유엔환경계획) 사무국장.
- 에엘란, 얀 Jan Egeland (?~) 유엔 긴급원조조정 사무차장.
- 엘라라비, 나빌 Nabil Elaraby (? ~) 유엔 ICJ(국제사법재판소) 판사.
- 우치야마 히토시 内山 齊 (1935~) 일본 요미우리신문(그룹 본사) 사장.
- 율리아나 Juliana 본명 율리아나 루이세 에마 마리 빌헬미나 Juliana Louise Emma Marie Wilhelmina (1909~2004) 네덜란드 전 여왕(재위년 1948~80).
- 이시하라 다카시 石原 俊 (1912~2003) 일본 기업인.

- 잭슨, 피터 Peter Jackson (1961~) 뉴질랜드 감독.
- 젤위거, 르네이 Renée Zellweger (1969~) 미국 여배우.
- 주라비슈빌리, 살로메 Salome Zurabishvili (1952~) 그루지야 외무장관.
- 지마, 브루노 Bruno Simma (? ~) 유엔 ICJ(국제사법재판소) 판사.
- 찬드, 로켄드라 바하두르 Lokendra Bahadur Chand (1940~) 네팔 정치가.
- 찰스 왕세자, 필립 아서 조지 Prince Charles Philip Arthur George (1948~) 영국 왕세자.
- 체리나, 루드밀라 Ludmilla Tcherina (1924~2004) 러시아계 프랑스 발레리나, 여배우.
- 커닝햄, 머스 Merce Cunningham (1919~) 미국 무용가, 안무가, 교사, 감독.
- 쿡, (앨프리드) 앨리스터 (Alfred) Alistair Cooke (1908~2004) 영국 저널리스트, 방송해설가, 수필가.
- 크리앙사크, 차마난 Kriangsak Chamanand (1918~2003) 타이 정치가.
- 키우 삼판 Khieu Samphan (1931~) 캄보디아 정치가.
- 톰카, 페테르 Peter Tomka (? ~) 유엔 ICJ(국제사법재판소) 판사.
- 트로야노프스키, 올레크 Oleg A. Troyanovsky (1919~2003) 구 소련 외교관.
- 트윅기 Twigg 본명 레슬리 로슨 Lesley Lawson, 결혼 전 성 혼비 Hornby (1949~) 영국 패션 모델, 여배우, 가수.
- 파라바츠, 보리슬라브 Borislav Paravac (1943~)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간부회원.
- 파피어, 한스위르겐 Hans-Jürgen Papier (194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소장.
- 파타키, 조지 George Pataki (1945~) 미국 뉴욕 주지사.
- 펜, 손 Sean Penn (1960~) 미국 배우.
- 프랏코프, 미하일 Mikhail Fradkov (1951~) 러시아 총리.
- 프렌더개스트, 키런 Kieran Prendergast (? ~) 유엔 정치 사무차장.
- 피오프, 페터 Peter Piot (? ~) 유엔 UNAIDS(유엔합동에이즈계획) 사무국장.
- 하담, 압둘할림 Abdul-Halim Khaddam (1938~) 시리아 부통령.
- 하디, 압드라보 만수르 Abd-Rabbo Mansur Hadi (1944~) 예멘 부통령.
- 하디드, 자하 Zaha Hadid (1950~) 영국 여류 건축가.
- 하이드, 헨리 Henry Hyde (1924~) 미국 정치가.

- 힐, 크리스토퍼 Christopher R. Hill (1951~) 폴란드 주재 미국 대사.

[일반 용어]

- 프리즈커 상(賞) Pritzker Architectural Prize 미국의 하이엇 재단이 중심이 되어 제정한 국제적 건축상.

2) 제58차 회의 심의 결과 (2004. 5. 28.)

[인 명]

- 건, 톰(툼슨 윌리엄) Thom(son William) Gunn (1929~2004) 영국 시인.
- 응우옌 카오 키 Nguyen Cao Ky (1930~) 남베트남 군인, 정치가. 총리(재임기 1965~67), 부통령(재임기 1967~71).
- 응우옌 티 빈 Nguyen Thi Binh (1927~) 베트남 아동보호기금 총재.
- 라토, 로드리고 Rodrigo Rato 본명 로드리고 데 라토 이 피가레도 Rodrigo de Rato y Figaredo (1948~) IMF(국제통화기금) 총재. 전 스페인 부총리 겸 경제장관 (재임기 1996~2004).
- 로더, 에스티 Estée Lauder 본명 조지핀 에스터 멘처 Josephine Esther Mentzer (1908~2004) 미국 여성 실업가.
- 배니스터, 로저 (길버트) Sir Roger (Gilbert) Bannister (1929~) 영국 신경과 의사, 육상경기 선수.
- 베리, 나비 Nabih Berri (1938~) 레바논 국회의장.
- 버겐설, 토머스 Thomas Buergenthal (1934~) 유엔 ICJ(국제사법재판소) 판사. 슬로바키아 출신 미국인.
- 부시, 조지 (허버트 워커) George (Herbert Walker) Bush (1924~) 미국 정치가. 제 41대 대통령(재위기 1989~93). 부시 대통령(제43대)의 부친.
- 부텔레지, 망고수투 (가차) Mangosuthu (Gatsha) Buthelezi (1928~) 남아프리카 줄루족 지도자, 정치가.
- 분낭 보라췌 Bounnhang Vorachit (1937~) 라오스 총리.

- 블레이, 라이어널 Lionel Blair (1934~) 영국 무용가, 안무가. 캐나다 태생.
- 브라운, 고든 Gordon Brown (1951~) 영국 재무장관.
- 브루턴, 존 (제라드) John (Gerard) Bruton (1947~) 아일랜드 정치가.
- 사카, 안토니오 Antonio Saca (1965~) 엘살바도르 대통령.
- (로드리게스) 사파테로, 호세 루이스 José Luis Rodríguez Zapatero (1960~) 스페인 총리.
- 살리나스 (데고르타리), 카를로스 Carlos Salinas de Gortari (1948~) 멕시코 정치가. 전 대통령(재위기 88~94).
- 셀비, 휴버트, 주니어 Hubert Selby Jr. (1929~2004) 미국 작가.
- 싱, 만모한 Manmohan Singh (1932~) 인도 총리.
- 오카다 가쓰야 岡田克也 (1953~) 일본 민주당 대표.
- 카디로프, 아흐마트 Akhmad Kadyrov (1951~2004) 전 체첸 공화국 대통령.
- 카라만리스, 콘스탄티노스 Konstantinos Karamanlis 별칭 코스타스 카라만리스 Kostas Karamanlis (1956~) 그리스 총리.
- 코폴라, 소피아 Sofia Coppola (1971~) 미국 영화 감독, 사진 작가, 여배우, 디자이너.
- 코폴라, 프랜시스 포드 Francis Ford Coppola (1939~) 미국 영화 감독, 제작자, 시나리오 작가.
- 탈라스, 무스타파 Mustafa Talass (1931~) 시리아 정치가.
- 토리호스, 마르틴 Martin Torrijos (1963~) 파나마 대통령.
- 파드, 빈 압둘아지즈 Fahd bin Abdul-Aziz (1923~) 사우디아라비아 국왕.
- 알파예즈, 파이살 Faisal al-Fayez (1952~) 요르단 총리.
- 페르난데스, 레오넬, 레이나 Leonel Fernández Reyna (1953~) 도미니카 공화국 대통령.
- 프라무다, 아난타 투르 Pramoedya Ananta Toer (1925~) 인도네시아 문학가.
- 피셔, 하인츠 Heinz Fischer (1938~) 오스트리아 대통령.
- 헤이칼, 무하마드 하사네인 Muhammad Hassanein Heikal (1923~) 이집트 언론인.
- 후세인, 사담 Saddam Hussein (1937~) 이라크 정치가, 군인. 대통령(재임기 1979~2003).

[일반 용어]

- 샤부샤부 シャブシャブ 냄비 요리의 하나. 얇게 썬 고기(주로 쇠고기)를 끓는 물에 데쳐, 양념장에 찍어 먹는 요리. (× 샤브샤브)
- 잉카타 Inkatha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대 부족 зу루족을 기반으로 한 민족문화 해방 조직. 1975년 зу루족 지도자 망고수투 부텔레지가 설립.
- 에스티로더 Estée Lauder 미국 화장품 메이커 에스티로더사(Estée Lauder, Inc.)의 브랜드.

3. 국제 학술 교류

(1) 일본국어연구소와 학술교류를 위한 기본합의서 교환

국립국어연구원(남기심 원장)과 일본 국립국어연구소(가이무쓰로<甲斐睦朗> 소장)는 2003년 10월 29일에 상호 존중, 호혜 평등, 우호적 협력을 기초로 연구 정보의 교류 협력 사업과 학술 교류를 위한 기본 합의를 교환하였다. 구체적인 교류 사업은 양 기관의 협의 하에 실시하게 된다.

(2) 일본 국어연구소 주최 국제 심포지엄 참가

남기심 국립국어연구원장과 조남호 학예연구관은 일본 국립국어연구소 초청으로 2004년 3월 19일(금)부터 3월 25일(목)까지 일본 국립국어연구소 주최 제11회 국제 심포지엄에 참가하였다. ‘세계 외래어의 제상(諸相)’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 심포지엄에서 남기심 원장은 ‘신어 속의 외래어’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였으며, 조남호 연구관은 ‘한국어의 차용어사’, ‘현대국어에서의 외래어 수용 양상의 변천’이라는 제목으로 2회 발표를 하였다. 국제 심포지엄이 끝난 후 조남호 연구관은 4월 9일(금)까지 국립국어연구소에 해외 단기 체재 연구원으로 2주간 머무르면서 국립국어연구소의 연구 성과를 견학하였다.

(3) 제22차 국제한자특별전문위원회(IRG) 회의 참석

이준석 학예연구사는 2004년 5월 24일(월)부터 5월 28일(금)까지 중국 청두(成都)에서 열린 제22차 국제한자특별전문위원회(IRG) 회의에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휴대전화나 전자우편에 많이 쓰이는 한자를 중심으로 전산 상용한자(IICore)를 제정하는 마무리 작업과 세 번째 추가 한자(Ext.C1)에 등재할 한자들을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제23차 회의는 2004년 11월 29일부터 12월 3일까지 제주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4. 국어 진흥 활동 소개 및 동참 안내

(1) ‘우리말 겨루기’ 프로그램 참여

국립국어연구원은 2004년 4월부터 한국방송 제2텔레비전 프로그램 ‘우리말 겨루기’(수요일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제작에 참여해 오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재미있게 게임하며 한국어 실력을 키운다’는 데에 제작 의도를 두고 있다. 출연자들은 세 팀(총 여섯 명)으로 나누어 최첨단 티에프티(TFT, 박막 트랜지스터) 액정판 백여덟 개를 활용해 역동적이고 정교하게 낱말을 짜 맞춰 가며 팀 간에 국어 실력을 겨룬다. 막힌 칸이 하나하나 열릴 때마다 환호와 아쉬움이 교차되는 게임식 ‘우리말 겨루기’는 ‘놀러라 우리말’, ‘열려라 우리말’, ‘우리말이 보인다’, ‘역전 낱말 겨루기’, ‘운명의 한판’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2) ‘우리말이 흔들린다’ 경향신문, 한글문화연대와 공동 기획

국립국어연구원은 2004년 5월 18일부터 경향신문, 한글문화연대와 공동

으로 ‘우리말이 흔들린다’ 기획 기사를 경향신문 지면을 통해 매주 내보내고 있다. 우리의 말과 글이 흔들리고 위협받고 있는 실상을 짚어 보고, 대안을 모색해 보기 위하여 시작한 이 기획은 국어의 전반적인 현상과 그 문제점에 대해 다루고 있다.

(3)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 사이트 개설 안내

국립국어연구원은 외래어, 외국어의 남용을 미리 막고 우리말을 잘 보전하기 위하여 동아일보, 동아닷컴, 케이(KT)문화재단 등과 손잡고 전 국민을 상대로 하여 ‘우리말 다듬기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현재 남용되고 있는 외래어, 외국어에 대신할 다듬은 말을 누구나 자유롭게 제안하거나 선정하는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말 다듬기 사이트(www.malteo.net)를 마련하였다.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다듬은 말을 처음으로 제안한 이에게는 30만 원의 상품권(권)을, ‘다듬은 말’ 선정을 위한 투표에 참여한 분들은 추첨하여 도서 상품권(3만원)을 드릴 예정이다.

(4) 우리말 가꾸기 운동 동참 안내(독자들에게 드리는 말씀)

요즈음 우리의 언어생활은 급속하게 유입되는 외국어와 외래어로 혼란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이에 국립국어연구원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도움으로 우리말을 지키고 가꾸는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외국어가 우리 언어생활 속에서 굳어지기 전에 이를 갈음할 수 있는 적절한 우리말이 생각나거나 여러분이 아시는 정겨운 토박이말 중에서 살려 쓰고 싶은 말이 있으면 알려 주십시오.**(국어대사전, 방언사전에도 올라 있지 않은 낱말이라면 더욱 좋습니다.) 보내 주신 낱말은 국어 순화나 방언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권말의 우편엽서를 이용하시거나 팩스 02-2669-9787, 전자우편 leejs@korean.go.kr로 보내 주시면 선정하여 ‘새국어생활’에 실어 드리겠습니다.

5. 국어문화학교 운영 성과

(1) 원내 국어문화학교

원내 국어문화학교 국어반 강좌는 2004년 상반기에 공무원반, 출판인반·일반인반으로 나누어 5일간(35시간) 열어, 총 543명이 수강하였다.

열린 시기와 수강 인원은 다음과 같다.

제107기	2004. 4. 19.~4. 23.	공무원반·출판인반	110명
제108기	2004. 4. 26.~4. 30.	공무원반·출판인반	91명
제109기	2004. 5. 10.~5. 14.	공무원반·출판인반	109명
제110기	2004. 5. 17.~5. 21.	공무원반·출판인반	65명
제111기	2004. 6. 14.~6. 18.	공무원반·출판인반	101명
제112기	2004. 6. 21.~6. 25.	공무원반·출판인반	67명

(2)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는 4월에 23회, 5월에 15회, 6월에 14회 총 52회 강좌를 열어 연 인원 5,804명이 수강하였다.

6. 국립국어연구원 인사 (2003. 1. 1. ~ 2004. 6. 30)

2003. 1. 31.	박창원	국립국어연구원 어문자료연구부장→이화여자대학교 국문학과 교수
2003. 2. 1.	권재일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교수→국립국어연구원 어문규범연구부장
2003. 6. 21.	엄기훈	국립청주박물관 행정사무관→국립국어연구원 서무과 행정사무관

- 2004. 2. 1. 권재일 국립국어연구원 어문규범연구부장→서울대학교 언어학과 교수
- 2004. 2. 19. 최용기 어문실태연구부 학예연구관→어문자료연구부 학예연구관
- 2004. 2. 19. 박용찬 어문자료연구부 학예연구관→어문실태연구부 학예연구관
- 2004. 2. 26. 한정숙 국립국악원 전산 주사→국립국어연구원 어문규범연구부 전산 주사
- 2004. 2. 26. 강정미 국립국어연구원 어문규범연구부 전산 주사→국립국악원 전산 주사
- 2004. 2. 26. 오주현 문화관광부 문화콘텐츠진흥과 주사보→국립국어연구원 서무과 주사보
- 2004. 2. 26. 조현봉 국립국어연구원 서무과 주사보 →문화관광부 총무과 주사보
- 2004. 3. 2. 안경자 어문실태연구부 기능8급→어문자료연구부 기능8급
- 2004. 3. 2. 김하수 연세대학교 국문학과 교수→국립국어연구원 어문규범연구부장
- 2004. 3. 2. 정은경 어문자료연구부 기능10급→어문실태연구부 기능10급
- 2004. 3. 17. 정하순 국립국어연구원 어문규범연구부 기능9급→국립중앙박물관 기능9급
- 2004. 3. 17. 임현정 어문자료연구부 기능10급→어문규범연구부 기능10급